

경영, 경제학에서의 융복합적 접근

김홍섭 교수(인천대, 기독교경영연구원 부원장)

<목차>

1. 서론
2. 21세기의 변화와 융복합
3. 경영, 경제학에서의 융복합 현상
4. 향후 전망과 과제
5. 결어 및 토의

1. 서론

오늘의 우리 사회는 수많은 힘과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해 간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때로 협력하기도 한다. 이런 경쟁과 갈등의 환경속에서 협력과 통합 그리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지를 열어나가는 분야와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롭거나 탁월한 대안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경영학과 경제학은 인간의 삶속에 직접 연결되는 학문이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하는 등 행위를 통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게 한다. 융복합은 더 잘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며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방향이며 대안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21세기의 변화와 경영, 경제학에서 융복합적 접근과 전망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2. 21세기의 변화와 융복합

2.1 21세기의 주요 경영, 경제 여건 변화¹⁾

2.1.1 21세기의 주요 특성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우리사회를 특징하는 다양한 주장과 개념이 있으나 여기서는 중요한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약,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보화 사회

산업사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토플러(A. Toffler)에 의해 강조되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소통이 원활하며 특히 인터넷 기반한 네트워크 사회를 지칭한다. 정보화 사회의 정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며, 질과 양의 2가지 면에서 풍부한 정보가 생산되어 전달(유통)

1) 필자의 논문(존 웨슬리의 경영, 경제사상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로고스 경영연구, 제12권 제1호 2014.3)의 일부 수정한 것임

되는 사회, 이들 풍부한 정보의 생산·처리·전달·축적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이룬 사회, 정보의 생산·처리·전달·축적을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한 정보기구나 정보 네트워크가 급격히 발달하여 보급되는 사회 등이다(A. Toffler,1989).

2) WTO와 Bloc화 및 FTA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란 GATT(General Agreement for Trade and Tariffs;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가 1948년 이래 꾸준히 추구하여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시키고 협정을 이행하도록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질서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를 가리킨다. 그 설립배경은 첫째, WTO는 국제무역불균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생되었다. 둘째, WTO는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규범을 보완하고 새로이 제정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셋째, WTO는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WTO는 오늘날 핵심 경제 틀이며 동시에 지역중심의 경제Bloc화와 각 국간에 형성되는 FTA와 TPP나 RCEP 등 집단 협의체 등에 의해 새로운 세계 경제의 기본 틀로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무한경쟁과 선진국 중심의 세계 금융, 무역환경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운영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3) 소비자 및 대중의 영향증대

메가트렌드(Megatrends)에서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1980년대를 이끌어 갈 메가트렌드로 10가지를 들었으며 그중에서 대중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와 소비대중의 역할을 강조하였다.(Naisbitt, J.,1997).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한 제품의 소비자의 위치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국가의 경제와 기업정책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컨슈머리즘(consumerism)은 기업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4) 노동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기계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한 3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종말을 야기한다고 내다봤다. “지능 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기술혁신론은 무참히 깨어졌다. 신 기술이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값싼 재화의 공급을 촉진해 구매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커지면서 국부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실업률 상승 구매력 감소 등 전 세계를 불황시대로 몰아 넣었다. 적은 노동력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보다 성능이 향상된 컴퓨터 네트워크는 일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현상을 부추겼고 고용 없는 성장을 가능케 했다(J. Rifkin,1996).

사회 곳곳에서 첨단기계와 정보기술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인 노동을 대신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리프킨의 예견은 적중해 인간의 노동이 필연적으로 감소하였다. 인간에게 노동을 빼앗는 장본인은 효율성을 앞세운 기술과 그로 인한 경영 혁신은 지속되고, 그 끝은 대량 실업일 수밖에 없게되었다. 1995년 발표한 ‘노동의 종말’은 당시 기술문명에 취해 있던 전 세계에 잿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장밋빛 희망을 버리진 않았다. 그는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5) 통합(integration), 융합(fusion, convergence) 및 통섭(consilience)의 확장

오늘의 과학과 학문은 종전의 분과주의를 뛰어 넘어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통합하여 융합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통합 융합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근래에 에드워드 윌슨(Wilson Edward O.)은 저서 《Consilience:통섭, 지식의 대통합》를 통해 통섭(Consilience)이란 개념이 퍼지고 있다(Wilson Edward O.,2005). 또한 윌슨은 《사회생물학》(1975년)을 저술한 인본주의적 생물학자로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간격을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과학, 인문학과 예술이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분리된 각 학문의 세세한 부분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서로 연계, 통합하여 근원적 문제와 구조를 접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Wilson Edward O. 1975). 이런 융합의 경향은 산업과 경영의 여러 분야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6) 아시아와 여성의 영향증대

오늘날 세계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21세기에 아시아가 경제, 정치, 문화에서 세계의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나이스비트(John Naisbitt)의 주장이며, 이는 이미 일본과 한국의 세계경제에서의 높은 위상과 근래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여성의 역할이 증대할 것을 주장하였다(Naisbitt, J. 1992). 그는 소비는 물론 생산과 서비스의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여성적 가치로 점차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지배욕, 정복욕, 무자비함이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배려, 연결성, 동정심 등 여성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7) 소비자과 대중의 영향 강조

고객만족(cs) 운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이제 우리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되었다. 이는 초기의 CO (Customer Orientation)에서 CS (Customer Satisfaction),CH (Customer Happiness) 그리고 CLV (Customer Life Value : 고객생애가치) 등으로 변화되었다.

8) 환경 가치 중시와 기후 변화

환경의 보전과 경제개발을 균형적으로 진행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환경요인이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환경에 예측불허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인류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정책, 기업의 전략 그리고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는 지구생태계와 기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사회에서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2050년이 되면 기상이변이 초래하는 비용이 세계 GDP의 1%에 이를 수도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세계 GDP 1%는 7억2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205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폭을 2도로 억제하려면 매년 700억~1000억 달러가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투입돼야 한다. 지구기온이 3~4도 상승할 경우, 해수면 상승과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기후난민이 2억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한다.

9) 경영의 관심영역 변화와 확대

급변하는 경제, 경영의 여건에 조직과 기업은 변화하게 된다. 많은 변화가 있으나 여기서는 다음 두가지를 들고자 한다. 먼저, 관계경영 (Relationship Management)의 강조다. 연계와 관계가 중시되는 주요 경영의 주요 영역으로 관계(연결) 마케팅(Relation Marketing)을 들 수 있다. 경영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에서 광범위한 마케팅 환경과 연계된 부문들의 연결, 협력을 통해 경쟁우위를 갖을 수 있고,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사업모델(Business Model)과 시간 중요성 강조다. B2C, B2B 및 C2B C2C 등은 물론이고 다양한 E-Business와 M-Business 의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경영에서 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짧은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 강조된다(김홍섭,2013). 정책의 시행이나 상품 개발에서도 고객의 욕구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시간 단축을 위한 동시 진행 방식(Concurrent Operating Management)과 JIT(Just-In-Time)방식 그리고 다양한 IT기술과 최적화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2.1.2 근래 경영, 경제영역의 주요 이슈

전술한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환경변화 이외에도 오늘날 우리 경영현장에는 다양한 새로운 요구와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로 다음의 사항을 요약,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2항)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주요 판례들은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을 경제질서를 경제헌법의 지도원칙으로 표명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와 더불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사회적 책임(CSR)의 강조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온전한 존속과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으로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국가,기업,개인에 요구되어진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황봉환,2013) 역사적 사례는 물론, 오늘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영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설명할 때 흔히 조지아(Georgia) 대학의 캐롤(Carroll) 교수가 제시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으로 구분한다(www.kosif.org. 참조).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법적 책임이란 기업의 경

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속한 사회가 제정해 놓은 법을 준수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윤리적 책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책임이 아니지만 기업이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기대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선적 책임은 기부나 사회공헌 등 기업의 개별적 판단과 선택과 관련된 책임을 말한다.

3) 창조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깨어있는 자본주의 및 따뜻한 자본주의

이들은 다양한 개념과 이름으로 불리어 사용되고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가치와 내용을 지향한다. 창조적인 자본주의는 빌 게이츠(Bill Gates)가 Making Capitalism More Creative란 주제로 미 시사주간지 TIME(2008.7.31)에 제시하면서 강조되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시장의 힘을 최대한 확대하여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세계를 위해 많은 좋은 일들을 해온 제도(자본주의)속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창조적인 자본주의란 어떤 커다란 새로운 경제이론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이윤을 보다 효과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의 향상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해당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비슷한 개념의 자본주의 4.0도 “자본주의가 고정된 제도의 묶음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적응해온 사회체제”라면서,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가 위기를 통해 재조정되어 왔다고 주장한다(Kaletsky Anatole, 2011).

그는 자본주의 제1기, 즉 자본주의 1.0은 나폴레옹에 대한 영국의 승리에서 시작해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이어 대공황으로 막을 내리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다. 유럽에서 복지국가 전성기를 누리고 미국에서도 루스벨트의 뉴딜과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가 광과 르를 울리던 시기가 자본주의 제2기(2.0)이다. 그 것의 특징인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자본주의’는 1970년대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처한다. 제3기(3.0)는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의 시장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 이었는데, 이것은 2008년 가을 미국의 금융위기로 종을 쳤다. ‘자본주의 4.0’은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 “이론경제학과 정치이데올로기의 해로운 상호작용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만 강조했던 이전 시대의 경제인식과는 달리 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와 경제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 (ISO) 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 26000 을 2010년 11월에 제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준비 기간은 4년(2001년~2004년),개발 기간은 6년(2005년~2010)년이 걸렸으며, 2013년 현재 세계적으로 1만개가 넘는 단체가 ISO 26000 지침을 사용한다.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세계적인 표준이다. 그 핵심분야는 7가지로 조직 거버넌스,인권,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이다. ISO 26000 문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이행할 때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ISO 26000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조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또는 프로그램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는 각 조직이나 기업의 결정에 따른다.

5) CSV 및 CSI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중요한 경영의 방향성으로 강조된지 오래다. 포터(M. Porter)는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강조한다. 기업과 조직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파트너와 고객을 포함한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유하는 가치를 늘리고 확장하며 창조하는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Porter M. E. & Kramer M.R.,2011)

그리고 동시에 경영활동은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는 조직이며 자체적으로도 기업 사회혁신(CSI: Corporate Social Innovation)의 주체가 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등 상생과 공유적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6) 마케팅 3.0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새로 온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전략만을 가지고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SNS 등을 통해 기업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마켓 3.0 시대라 부른다.(Kotler P. , 2010) 마케팅 1.0 시대에선 주로 회사 입장에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였다. 2.0 시대에는 소비자 중심, 3.0 시대에는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지를 보여줬다. 반면, 4.0 시대에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에 더하여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제 기업의 일방적인 서베이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단편적으로 파악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하는 여러 가지 채널에서 직접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관여하게 된다.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2.2 융복합, 통섭, 통합의 의미

2.2.1 융합(convergence)

융합(融合)의 사전적 의미는 녹아서 하나로 합침, 유해하여 화합함. 둘이상의 자극물이 섞여서 합성된 지각(知覺)이 생기는 현상.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충동(정신분석용어)²⁾ 또한 융합과학(融合科學)은 과학,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의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및 응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 분야를 말한다. 20세기 중엽부터 21세기에 이르러 학문과 기술의 수렴 및 융합의 흐름이 전개되었다.

융합과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공학, 과학 및 문화의 여러 영역들을 동일한 창조와 융합의 정신, 원리로 탐구하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융합과학은 나뉘어 있던 자연의 지식 영역들의 경계에 따라 각 학문을 개별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 자연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각 학문이 개별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각각의 요소를 모두 고

2) 새우리말 큰 사전, 신기철, 신용철. 삼성출판사. 1980

려하여 통합적인 탐구를 이루어낸다.³⁾ 융합과학은 융합과학기술, 학제간 과학, 통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2.2 통섭

근래 통섭(統攝, consilience)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통섭은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Consilience 이라는 단어를 1840년에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 1794~1866)이 처음 사용하였고, 그는 영국의 과학자, 성공회 성직자, 철학자, 신학자, 과학사가이며, 그가 쓴 귀납적 과학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말은 라틴어 'consiliere'에서 온 것으로, 여기서 'con-'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있고 'salire'는 '뛰어오르다', '뛰어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합하면 '더불어 넘나들'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서로 다른 현상들로부터 도출되는 귀납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정연한 일관성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휴얼은 "귀납의 통섭은 하나의 사실 집합으로부터 얻어진 하나의 귀납이 다른 사실 집합으로부터 얻어진 또 하나의 귀납과 부합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통섭은 귀납이 사용된 그 이론이 과연 참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험이다."라고 하였다

최근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Edward Osborne Wilson, 1929~)의 1998년 저서 《통섭, 지식의 대통합》을 통해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 윌슨의 제자 최재천 교수가 처음으로 '통섭(한자 : 統攝)'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사물에 널리 통함'이라는 뜻을 가진 '통섭(通涉)'과는 다르며 불교와 성리학에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큰 줄기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다.(Wilson, 2005, 12-13)

휴얼은 통섭에서도 융합적 통섭을 설명한다. 그는 귀납적 과학의 철학 보다 3년 먼저 저술한 그의 저서 귀납적 과학의 역사에서 과학을 강에 비유하였다. 그는 여러 갈래의 냇물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먼저 밝혀진 진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합쳐져서 결국 하나의 강물에 포함될 뿐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는 환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냇물이 강으로 환원되지 않는 진리가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진리들과 합류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휴얼의 설명은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에 비해 윌슨은 환원주의적 통섭을 제안한다. 태생적으로 환원주의는 통섭과 상반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윌슨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적인 입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환원주의를 통섭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윌슨의 환원주의적 통섭은 나무에 비유된다. 나무는 가운데 줄기를 두고 위로는 여러 갈래의 가지를 뻗어 나가고 땅 속으로는 많은 뿌리로 갈라져 있다. 줄기가 뿌리와 가지를 연결하듯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학문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측정하고 이론화 하는 학문들이 상호 영향적인 통섭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3) 20세기 중엽부터 21세기에 이르러 학문과 기술의 수렴 및 융합의 흐름이 전개되었다. 융합과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공학, 과학 및 문화의 여러 영역들을 동일한 창조와 융합의 정신, 원리로 탐구하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융합과학은 나뉘어 있던 자연의 지식 영역들의 경계에 따라 각 학문을 개별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다. 자연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각 학문이 개별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각각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인 탐구를 이루어낸다.(위키백과 참조)

2.2.3 융복합

한국에서의 융합과학은 기술의 수렴에 대한 한국적인 해석과 최재천, 장대익교수에 의해 국내에 들어오게 된 통섭의 개념과 추가적으로 융합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융합은 쓰임에 따라 조금씩 의미에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통섭은 학문 간의 융합의 한 면모이며, 통합은 서구에서 통용되는 기술 간의 수렴보다 더 넓은 인문학, 사회과학과 과학 및 과학기술의 융합의 개념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융합에는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위키백과)

융합과학은 크게 융합과학기술, 학제간 과학, 통섭으로 나뉜다. 융합과학기술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각의 분야의 기술이 합쳐져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연구한 후에도 각각의 분야는 그 고유한 성격을 잃지 않는다. 반면 학제간 과학은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단일학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한다. 각각의 분야가 완전히 통합되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섭은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회과학을 연결하는 통합 학문 이론으로 환원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융복합이란 이런 유사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경영, 경제학에서의 융복합 현상

3.1 경영학에서의 융복합 현상

3.1.1 경영학내의 융합 실태

경영학에는 다양한 세부 영역이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학제간 교류와 융합을 통해 학문이 발전해오고 있다.

생산분야에서는 기계와 컴퓨터 공학, 시스템공학과 및 전자공학과 제어공학 등이 어우러져 효과적인 생산활동이 공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 로봇 등의 확장은 큰 생산의 추세라 할 수 있다.

인사, 조직분야에서도 심리학과 조직론 및 사회학, 리더십, 정치학 등의 이론이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인사관리의 영역에서 윤리학, 사회복지학 등이 접목되어 활용된다.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등의 학문이 융합되어 활용되고 정치사회학, 광고심리학 등이 활용된다

재무분야에서는 경제학적 이론과 수학, 확률 등 계량경영적 접근이 쓰이며, MIS분야에서는 다양한 컴퓨터 공학과 Network이론, 시스템이론 등이 활용된다.

회계학에는 회계 실무에서 컴퓨터를 통한 회계처리와 관리회계에서 의사결정 등에 계량적

접근과 수학이 활용된다

그리고 근본적인 기업과 조직의 방향과 철학을 설정하고, CEO의 결정에는 윤리학과 철학, 종교 등의 가치와 방향이 내포된 경영철학, 경영사상 및 기업의 Vision과 Mission 등이 중요한 경영의 근간이 된다. 시대의 가치인 환경과 생태학에 대한 이해도 경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3.1.2 학제간 융합 연구

1) 경제학

경제학과 경영학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전해 왔다. 경제학이 국가, 기업, 가계를 대상으로 사회 전반적 현상을 연구한다면 경영학은 기업과 (영리, 비영리)조직들을 주 대상으로 하며 상호 연관되어 의사결정하게 된다.

2) 신학, 종교

신학과 종교는 기업경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연계되어 있다. 신학과 경영학의 만남은 기업신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에 관한 본격적인 신학적, 윤리적 성찰은 1980년대 초 이후 특히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 마이클 노박이 “기업의 신학”을 발표하자 이 책은 신학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 시작했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노박은 기업에 신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다.⁴⁾ 그는 삼위일체의 원리를 공동체성, 창조성, 자율성으로 요약하고, 이 원리들이 이 세상에 육화되어 나타난 것이 기업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는 자본, 노동, 자연자원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기업이야말로 노동자와 자본가와 생태계에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라고 간주하고, 기업이 법적인 인격을 부여받아 자연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유사불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경영에 성경적 원리를 도입, 적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기독교경영연구원 등의 연구 성과물이 많이 축적되었다.

"핵심 목적을 탁월하게 성취하기 위해(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해) 성경적 원리를 가치 창출 활동에 적용해가는 과정"이라 정의하며(배종석 외, 2006), 기독교 경영에서는 핵심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며, 성취에 있어서도 탁월하게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달란트가 충분하게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이다. 기독교 경영의 핵심 원리로 창조성·청지기·호혜성·공정성·신뢰성을 꼽았다. 이런 원리들은 '가치 창출을 통한 이웃사랑이 실현되고 있는가', '맡은 일에 성실한 자세로 직무수행을 하는가', '이웃·고객을 먼저 섬기는가, 상호존중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가', '조직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등의 주요 지표로 연결되어야 한다(배종석 외, 2010).

기독교경영론이 일반경영론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기업경영의 목적에 대한 이해로, 기독교경영론에서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기 보다는 하나님이다.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

4) Michael Novak, Toward a Theology of the Corporation,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1, 34ff.

여 창세기 (창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창조명령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곳이다. 즉, 기업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곳으로 이해된다. 기독교경영에서의 경영자는 단순히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황호찬,1994).

3)법학

법학은 상행위와 국가가 기업관련 규제와 진흥을 위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기능으로 입법 및 사법의 기능과 연계된다.

4)사회학

인간사회나 조직행동, 소비자 행동에서 사회학적 가치와 방법론을 접목시키고 융합하여 활용한다.

4) 심리학

인간개인의 심리와 태도를 연구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하며 조직행동과 소비자 행동에 심리학 이론과 방법론들이 융합되어 활용된다.

6) 행정학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과 재정을 통해 기업활동을 돕고 지원하며 행정, 경영원리를 상호보완적으로 원용한다.

7)수학

수학적 원리나 수식을 통해 시장과 제품의 상태나 조건을 최적화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수학적모델을 통해 기업경영의 최적해(optimal solutions)를 찾아낸다.

8) 통계학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큰 모집단을 표본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과 가설을 증명하는 등 여러 경영의사결정에 통계학이 이용된다.

9)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

생산관리와 공장에서 제품 생산에 그리고 시장과 소비자 분석 등에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 등 관련 공학이 사용된다.

10) 문화예술과 스포츠

또한 경영학은 스포츠 그리고 문화예술 및 정치 등의 영역에도 널리 사용되며 동시에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3.1.3 융합경영의 중요성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오고 있으며, 1950년대의 계량경영, 1970년대의 MIS, 그리고 1980년대의 품질경영 등이 강조되었다. 경영에서의 변화와 융합의 경향은 인터넷이 활성화된 199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2000년대에 IT와 인터넷의 발달과 연계로 유비쿼터스 경영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환경오염, 에너지의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경영 나노, 바이오, 콘텐츠 로봇 등으로 영역이 넓혀졌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감성경영이 강조되어 다양한 분야와 학문이 융합되게 되었다. 이런 융합경영의 방향은 경영전반에서 인접학문과 과학을 연대하고 융합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상생의 방향으로 깊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

경영환경에 대응하며 연구개발력을 강화하여 독창적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간의 본성, 이성, 감성 등 심리적, 윤리적 기반과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제품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최승일 외 2015 13.1. 177)

3.2 경제학

3.2.1 경제학내의 융합 실태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가게, 기업, 정부를 기본으로 세계경제의 교역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경제학에는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근간으로 하며 화폐경제, 경제발전론, 후생경제, 행동경제, 국제경제, 계량경제, 경제사 등 다양한 영역을 갖는다. 이들 연구주제 내에 이미 여러 이론과 학문들이 상호 연계되고 융합되어 오래전부터 발전해 오고 있으며, 그 융합의 정도는 넓고 깊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3.2.2 학제간 융합 실태

1) 진화경제학

경제학과 진화론이 접목, 융합하는 경향을 진화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진화경제학은 나름대로 오랜 학문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진화경제학의 주요 학자로 마이클 셔머(Michael Brant Shermer, 1954~)를 들 수 있다. 그는 리처드 도킨스, 스티븐 제이 굴드 등과 함께 과학의 최전선에서 사이버 과학, 창조론, 미신에 맞서 이론을 제시하여 온 인물로, 심리학을 전공한 뒤 클레어몬트대학원대에서 과학사 박사 학위 후, 1992년 과학저널 『스keptik (Skeptic)』을 창간해 현재까지 발행인을 맡고 있으며, 1997년 과학주의 운동의 본거지로 회의론자 학회(Skeptics Society)를 설립, 운영중이다.

셔머의 대표 저서인 진화경제학(원제, *The Mind of the Market : Compassionate Apes, Competitive Humans, and Other Tales from Evolutionary Economics*)은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석 도구로써 진화론을 큰 틀로 채택한 경제학서이다. 진화의 과정에는 돌연변이와 적자생존 그리고 자연선택이 필수적이다. 이 진화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비합리성과 시장의 비효율성을 잘 설명해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이론에 진화론과 행동심리학, 신경심리학을 융합시켜 새롭고 설명력 높은 경제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진화생물학과 심리학 지식을 토대로 경제학의 기존 지식들을 완전히 해체해 새롭게 재정립한다.

“왜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는가?”라는,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경제학자들이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인간과 효율적인 시장을 기본 전제로 하는 기존 경제

학에서 시장의 혼란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진화경제학은 기존 경제학이 비합리적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인간의 행동을 명백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선택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곧 기업에게 산출과 이윤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조직의 관행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시간을 거쳐 전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경제적 자연 선택은 조직의 유전학(organizational genetics)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조직은 원래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이 아니라 고정된 환경 하에서, 자기 보존(self-maintenance)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 어떤 변화보다 '지금 하던 것을 더 잘하는(more of the same)'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개별적인 조직(기업)의 기능을 대체로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이런 고정적인 행태를 가진 조직(기업)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집단에서의 집합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논리가 곧 '선택'의 힘이다."

2)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은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를 전제로 한 경제학이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제학이다.

애덤 스미스 이래 경제학은 많은 이론적 발달이 있었음에도 실제의 경제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보였다. 이는 사람이 갖는 여러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이유와 편향에 의해 일어나는 심리학적 현상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실험 심리학의 발달이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상적인 경제인을 전제로한 종래의 경제학 모델이 실제에서 맞지 않는 이유를 다양한 인간의 심리에 관련된 실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 1934~)은 행동경제학의 발달에 대한 공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2002년 캐너먼의 노벨 경제학 수상은 경제학의 새로운 전기가 됐다. 행동경제학은 합리성이라는 가정 하에 도출된 모든 이론 경제학의 결론을 실험을 통해 하나씩 되짚어 보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식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라는 이론 경제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같다. 즉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인간이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인간의 합리성에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가정 자체가 의심받다보니 행동경제학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3) 게임 이론(game theory)

현대 컴퓨터의 개념을 확립한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창안한 게임이론은 상대방의 선택이 개인의 성공에 영향을 줄 때 최적의 방안을 찾는 전략을 연구하는 응용수학의 한 분야다. 내쉬는 게임의 균형점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도입했고 그를 기념해서 '내쉬 균형점'이라 부른다. 게임에 참가하는 주체들이 최선의 전략을 택했다면 이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게임(game)이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일정한 전략을 가지고 최고의 보상을 얻기 위해 벌이는 행위를 말한다. 게임 이론은 사회 과학, 특히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응용

수학의 한 분야이며, 생물학, 정치학, 컴퓨터 공학, 철학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게임이론은 참가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때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준다

4) 기술경제학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기술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관리하며 산업과 기업현장에 적용하며, 미래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의 영역이다.

후.발.국.의. 경.제., 산.업., 기.업. 차.원.의. 기.술.혁.신. 성.과.에. 의.한. 기.술.추.격.에. 대.한. 연.구.가. 최.근. 다.양.한. 실.증.적. 결.과.와. 다.양.한. 이.론.적. 전.개.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에.는. 후.발.국.은. 선.진.국.의. 낙.후.된. 기.술.을. 흡.수. 개.량.하.는. 가.운.데. 기.술.적. 역.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제.품.(기.술.) 수.명.주.기.설.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신.습.페.터.학.과.의. 기.술.경.제. 학., 지.식.경.제. 학. 및. 지.식.경.영.론., 심.층.적. 산.업./기.업. 차.원. 분.석. 등. 다.양.한.이.론.적. 시.각.에. 기.반.한. 연.구.가. 많.다. 우.리.는. 후.발.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독.자.적.인. 제.품. 설.계.에. 성.공.할. 때. 이. 위.기.가. 동.시.에. 비.약("단.계.생.략.형" 혹은"경.로.창.출.형" 추.격)을. 낳.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즉, 설.계. 기.술.확.보.라.는. 위.기.는. 비.약.을. 낳.는. 추.동. 요.소.인. 반.면,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도.래.는. 기.술.비.약.을. 낳.는. 견.인.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이.근 (2005))

5) 뇌과학을 통해 경제이론을 입증

최근에는 경제학에 뇌과학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같은 생화학 물질의 영향, 그리고 뇌의 특정 부위와 인간 행동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장치(fMRI)를 이용하여 피험자가 경제적 선택을 하는 순간의 뇌 반응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심리, 의사결정 양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기업과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조할 것이다.

동일한 수익이 발생하는 선택도 긍정적인 틀로 표현될 경우와 부정적인 틀로 표현될 경우에 선택이 달라졌고 뇌의 관련 부위 반응도 다르게 나타났다. 한 예로 100 중에 60을 잃은 경우와 100중에 40을 얻는 것은 금액은 같지만 사람들은 '얻는다.'라고 표현된 대안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기존 이론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단이 전혀 없으나, 뇌과학은 이론경제학은 물론, 전통적인 실험법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았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6) 기독교경제학

성경과 기독교적 원리를 경제학과 경제 현장에 적용하고 이론을 파악하고 연구하기 위한 모임으로 기독교경제 및 이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의 연구 및 발표를 지향한다.

경제의 여러 제도와 정책 및 기업 등 조직의 운영과 관행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다양한 연구,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7) 융합경제학의 시도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추상적 설계와 구체적 설계 그리고 구현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경제학자들이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불균형의 문제가 생겼던 근본적 원인이 정치와 경제의 권력 문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경제 역사를 분석하였다.

“자유와 민주의 이념 융합”에서 자본주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담은 경제의 자유와 민주라는 거대담론을 융합하여 현재 문제의 해법의 이념으로 제안했다.

자유와 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 해결 방법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설계하고, 인적 자본과 지식자본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정의를 기반으로 자본중심의 경제 구조와 지식자본, 인적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경제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현재의 자본주의가 차세대 자본주의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조합)구조를 제안하고, 그리고 자본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지식자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미시적인 기업융합구조와 서비스 융합에 대해 설명한다.(김대영,2013)

3.2.3 경제학에서 학문간 융합 현상 심화

경제학에서의 융합적 현상이 활발해지면서 인간의 경제적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법칙을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람의 행동이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어떤 사회냐,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익과 손실의 상대가 누구냐, 어떤 상황이냐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 학문간 융합 현상은 도드라질 것으로 송 소장은 예측하고 있다. 경제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이다. 화가도 문인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모두 먹고 살기 위한 행위를 피할 수 없다. 경제학이 융합에 가장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경제적 행위에 대한 이해는 행위의 주체인 인간을 알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다른 학문과 융합에 적극적으로 된다.

4. 융복합 현상의 향후 전망과 과제

4.1 향후 전망

4.1.1 융합 현상의 확장

경영과 경제학 분야에서의 융복합 현상은 대상 범위가 넓어지며 수평적 지경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4.1.2 융합 현상의 심화

융복합 현상은 각 학문의 일반 부문에서 세부 학문분야 까지 점차 더 깊고 심화되어 나타날 전망이다. 학문은 점차 세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학문간의 협력과 통합의 방향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4.1.3 융합현상의 분화(다변화)

세계 경제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합리성’과 ‘균형’이라는 두 축으로 신(神)처럼 추앙받아온 시장이 탐욕과 방탕에 노출될 때 어떤 혼란과 공포를 가져오는지 보여주었다. 작은 요동이 시스템 내에서 누적적 증폭 과정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된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연체라는 경제 시스템에서 본다면 매우 특수한 일부분의 요동이 금융회사의 연쇄적 부실로 이어졌다.

과거 마르크스와 케인스 경제학이 했던 것처럼, 변이와 다양성을 중시하고 동태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윈이 생태계를 설명한 ‘다양성 확대’, ‘새로운 종의 끊임없는 출현’, ‘예상치 못한 변화의 증폭’이 경영, 경제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균형상태가 경영, 경제환경의 정상이 아니라 변화가 곧 정상상태가 된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의 학문간, 기술간 융합은 더 분화되고 과거 생각하지 못한 부문까지도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융복합의 편익과 과제 전망

4.2.1 예상 편익

- 생산성과 효율성: 경제와 경영 활동에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고객만족 증대: 동시에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Needs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경쟁우위 확보: 잘 융합하는 기업(조직)은 그렇지 못한 기업(조직)보다 우월한 경쟁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학문의 발전: 학문간의 연계와 융합은 학문 자체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4.2.2 예상 과제와 문제점

- 인간성 상실 우려: 과도한 융합은 기술지상주의 효율 지상주의로 치달아 인간성의 손상이나 상실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몰개성 경향: 획일화된 제품과 서비스는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상실하게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의 위기 : 과도한 기계화, 정보화, 로봇트화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체 노동의 등장이 필요할 것이다
- 이성 중심과 사상의 변화: 이성과 합리성 효율성 중시의 문화에서 영성과 영혼에 대한 가치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질주의, 기계주의의 심화로 인간의 사상의 변화가 예상될 수 있다.
- 신과 절대자 위기 우려: 유전공학과 복제 등의 생물, 유전학적 발전은 장기의 재생, 생명

복제 등으로 신과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의 축소 등이 예상될 수 있다.

5. 결어 및 토의

오늘의 사회를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소통이 원활한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사회로 지칭한다. 다양한 기술과 경험들이 통합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 내게 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경쟁은 국제화되었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시키고 협정을 이행하도록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질서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와 대중의 영향증대하고 다양한 요구를 드러내고, 기업은 이를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며 이를 가능케하는 기술과 학문을 필요로 하게된다. 경쟁의 심화와 소비자의 욕구 고도화는 학문간 융복합의 필요성을 증대하고, 그 추세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이는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며, 사회적 추세다. 이런 학문의 융합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을 것이며,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엄성을 유지,발전시키며 공존, 공생하는 틀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결코 새로운 뭔가를 발명한 것이 없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모두 훔쳤다. 밖으로 나가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search),최선의 것이 발견되면 가져와서 조합(combine)했을 뿐이다. 그것이 그들이 이룩한 창조이다.... 이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누구도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 없다. 창조는 곧 창조적 조합이다. 창조는 찾고 조합하는 것이다.” 라 말한 더간(William Duggan)컬럼비아대 교수의 말(이인식,20108)을 생각해보게 한다.

학문에서의 융복합의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할 수 있다. 지금 관련 이론과 학문 연구,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편익과 아울러 문제점들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요구되며 보다 심도있는 연구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대영(2013), 융합경제 3.0 그리고 자본주의 7.0, 퍼플
- 김홍섭(2013), 나의 비전경영, 맑은나무,
- 김홍섭(2014), 존 웨슬리의 경영, 경제사상과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 12권 제1호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배종석 외(2006),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경영연구원, 예영커뮤니케이션
- 배종석 외 (2010), 『기독교경영 Just ABC』, 예영커뮤니케이션
- 이근 (2005) 기술경제학의 다양한 접근을 종합한 기술추격로의 재구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05-17
- 이인식(2008), 『지식의 대응함』, 고즈윈
- 최승일, 송성빈(2015), 기업의 융합역량이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177
- 황봉환(2013), 아모스시대의 사회적 양극화와 종교정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11(4),169-184

황호찬(1994), 회계, 정보에 대한 성경적 관점, 엠마오.

Nelson, R.(1985),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Harvard Univ.

Nelson, R (2010)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Implications for Catching-up Growth, 서울대19회 서남초청강좌조직위원회, conference 강연자료

Bill Gates(2008), Making Capitalism More Creative, TIME(2008.7.31)

Kaletsky Anatole(2011). Capitalism 4.0, 자본주의 4.0, 우선주 역, 컬처앤스토리

Kotler P(2010). Market 3.0 마켓 3.0, 안진환 역, 타임비즈,

Naisbitt John(1997), Megatrends 2000, 메가트렌드 2000, 김홍기 역, 한국경제신문사,

Michael Novak(1981), Toward a Theology of the Corporation, Washington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34ff.

Porter M. E. & Kramer M.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 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a.-Feb.

Rifkin, J.(1996), The End of Work, 노동의 종말, 이영호역, 민음사

Toffler, A. (1989), The 3rd Waves, 제3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사

Wilson, E. (2005) 지식의 대통합 , 장대익, 최재천 역 사이언스북스

www.kosif.org.

위키백과사전